

[190704 사회진보연대 이주국제팀 세미나] 유럽 정세 관련 번역

유럽 정세를 파악하는 데 참고하고자, 2018년 10월 2일에 출간된 Vol 55: Socialist Register 2019: A World Turned Upside Down?에 실린 글을 번역하였다.

* * * * *

코빈과 브렉시트: 좌파에게 길이 있는가?

CORBYN AND BREXIT BRITAIN: IS THERE A WAY FORWARD FOR THE LEFT?

Colin Leys

번역: 사회진보연대 이주국제팀

영국에서 세계화에 대한 반작용은 독립적이지만 서로 괴상하게 꼬인 두 가지 경로를 거쳐 나타났다. 그 중 하나는 영국의 구 산업지대의 빈곤화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는 2007-8 금융위기에 의해 증폭되었으며, 이는 금융위기에 대한 우파적 대응인 공공지출과 서비스의 극단적 감축에 대한 반작용이기도 했다. 유럽연합의 비민주적인 성격에 대한 반작용이 또 다른 하나의 경로다.

이 둘 중에서 반EU 정서가 먼저 활용되었다. 강경한 신자유주의자로 돈 많은 상품 트레이더 출신의 나이젤 페라지는 1993년에 이미 유럽연합의 비민주적인 엘리트적 속성에 대중의 불만을 집중시킬 수 있다는 것을 간파했다. 페라지는 보수당을 탈당하고 영국독립당(UKIP) 창당을 지원하고 2006년부터 지금까지 영국독립당을 이끌면서 세계화가 아니라 EU와 EU 회원국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유럽(특히 동유럽)으로부터의 대규모 이민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 2014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영국독립당은 영국에서 가장 많은 득표(26%)를 했고, 2016년에는 영국독립당이 주도하여 “통제권을 되찾자” 나 “나라를 되찾자”는 슬로건을 내건 캠페인을 통해 EU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에서 적은 표차로 그렇지만 확실히 승리함으로써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는 수순을 밟게 하였다. “탈퇴”와 “잔류” 투표는 지지 정당에 따라 갈리지 않았다. 보수당과 노동당 모두 이 투표를 놓고 서로 다른 방식으로 분열하였다. 국민투표에서 승리한 영국독립당은 실질적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노동당 보수당은 모두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것은 정치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여기면서도, 이를 실행하는 것 역시 지지율을 잃을 수 있다는 전망도 하고 있다.

국민투표를 실시한 여당인 보수당이 이 문제를 먼저 직면해야 했다. 2017년 잘못된 판단으로 총선을 실시한 보수당은 의회 다수당의 지위를 잃었다. 그 이후 보수당의 여당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내각의 소수 강경 “탈퇴파”와 북아일랜드의 반EU 민주연합당 덕분이었다. 하지만 다수의 보수당 의원들은 잔류파다. 이 때문에 EU와

의 협상 태도를 정하지 못하고 타협안에 목을 매는 상황이 이어졌으나, 모든 타협안들은 EU 27개국에서 이미 수용불가를 천명하였다. EU 탈퇴 시점인 2019년 3월 까지 어떤 합의안도 찾지 못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 보이며, 영국은 EU 단일시장과 관세 동맹에 대한 접근권을 상실하고 무역, 생산, 고용, 노동시장, 법적 권리 등 여러 사안에 걸쳐 끝이 나지 않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투표 시기 동안 이러한 합의들이 충분히 진지하게 토론된 적은 없으나, 2018년이 되니 이 모든 것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영국에서 삶의 거의 모든 측면에 EU와 복잡하게 얽혀 있음이 차츰 드러났다. 2019년 이후 몇 년간 어느 당이 집권을 하든 탈퇴의 실질적인 효과가 미칠 영향은 너무나 광범위하고 많은 비용도 소요될 것임이 밝혀질 것이었다.

세계화, 그리고 긴축에 대한 좌파 정치적 반작용이 늦게 등장하게 된 이유는 2015년까지 노동당은 세계화와 긴축 모두에 대해 공범이었기 때문이었다. 1997년부터 2010년까지 노동당 당수였던 토니 블레어와 고든 브라운은 당내에서 진보에 대한 의지와 민주적 에너지를 고갈시켰다. 이들은 노동당을 기업가들의 당, 글로벌 기업 권력과 미 제국주의 지배에 따르는 고위층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당으로 변모시켰다. 당원의 수는 줄어들고 노동계급 유권자는 투표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다른 유럽 사회주의 정당과는 다르게 노동당은 역설적이게도 1등만 당선되는 구닥다리 다수대표제 덕분에 선거 대패의 위기는 벗어날 수 있었다. 다수대표제 아래서 새로운 대안 정당이 의석을 얻기란 특정 지역 기반의 민족주의 정당이 아니라면 실질적으로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스코틀랜드 민족주의 정당, 그보다는 못하지만 웨일즈 민족주의 정당인 플라이드 컴리(Plaid Cymru)는 너른 사회민주적 사회경제 정책과 민족적 독립에 대한 요구를 결합함으로써 노동당으로부터 표를 빼앗아 올 수 있었고, 스코틀랜드에서는 2015년 총선에서 노동당 의석을 1석으로 만들어 버렸다. 하지만 잉글랜드(영국 인구의 84%)에서 새로운 좌파정당을 만들기 위한 일련의 시도는 모두 실패했다. 금융위기로부터 7년이 지나고, 보수당 정권이 긴축 조치를 도입한 지는 5년이 지나 불평등이 심화되고 사회 서비스에 대한 무자비한 감축이 이루어지던 2015년, 노동당의 정책은 ‘저강도 긴축(austerity lite)’라 불리며 보수당의 정책과 대체로 유사하였다. 그 해 6월 총선에서 노동당은 득표율을 거의 끌어올리지 못한 채 31%를 차지했다. 그럼에도 노동당은 하원 의석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이를 타개할 좌파 대안그룹은 없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우연, 그리고 자만심이 끼어들었다. 2014년 당규 변경으로 노동당은 당원들과 3파운드를 낸 노동당 ‘서포터’도 당수 선출권을 가지게 되었다. 물론 당수 후보는 하원의원 15%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했다. 이러한 규약 변경에는 ‘중도’ 후보만 승리를 담보할 수 있으리라는 사고가 깔려있었다. 에드 밀리반드(Ed Miliband)가 2015년 총선에서 패배한 직후 사퇴하자 새로운 규약이 적용되었다. 블레어-브라운 시대에서 살아남은 한 줌의 사회주의자 하원의원들은 선거에서 적어도 당내 좌파를 대표할 사람은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좌파 그룹의 일원인

제레미 코빈을 추천하도록 동료들을 설득했다. 코빈이 생똥맞은 이상주의자라고 생각하는 하원의원 몇 명이 포함되긴 했지만 지명에 필요한 의원 수에 딱 맞춰 지명이 되었다. 하지만 그가 총 423,000표 중 60% 가까이 득표하여 2등 후보보다 3배 많은 표를 가져가면서 선거를 승리하자 모두가 놀랐다. 대부분의 노동당 하원의원들은 아연실색하고 분노했다. 1년 뒤인 2016년 6월 하원의원 4분의 3이 코빈에 대한 불신임안에 찬성하면서 사퇴를 요구했다. 코빈이 사퇴를 거부하자 이들은 새로운 당대표 선출 선거를 요청하고 코빈의 대항마를 지지했다. 하지만 당원들은 코빈을 더 큰 표차로 재선출했다.

하원의원들은 일반당원과 당비를 내고 투표를 한 ‘서포터’들의 의견과 감정을 근본적으로 잘못 읽었지만, 더 광범위한 유권자들은 코빈의 정책을 거부할 것이라 생각했다. 그리고 2017년 노동당 주류와 마찬가지로 코빈이 당대표로 있는 노동당이 선거에서 표를 잃을 것이라 확신한 보수당 총리 테레사 메이는 조기 총선을 실시하였다. 그 때 평론가들과 여론조사 기관들은 예외 없이 노동당의 참패를 점쳤다. 선거 캠페인이 시작된 지 일주일, 노동당의 선거 공약집인 “소수가 아닌 다수를 위하여”가 언론에 유출되었다. 이 공약은 긴축으로부터의 완전한 단절과 광범위한 사민주의적 개혁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하지만 유출자가 예상한 것과는 반대로 공약은 노동당에 해를 끼친 것이 아니라 성공적인 것이었다. 노동당의 선거 캠페인은 대박이 났다. 6주에 걸친 선거운동 기간 동안 노동당의 득표율은 전례없이 31%에서 40%로 상승하였다.

이 정도로 과반수를 달성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보수당은 겨우 42% 득표에 그쳐 과반수 지위를 잃고 북아일랜드의 극우정당인 민주연합당(Democratic Unionist Party, DUP)의 조건부 지지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들 역시 자신들이 불러냈고 경제에 더 큰 악영향을 끼칠 것이 확실한 브렉시트를 놓고 분열되었다. 사회주의 지향 지도부의 노동당 정부가 갑자기 현실적인 가능성으로 보였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일장춘몽으로 끝날 것인가? 2007-8년 금융 위기의 영향은 확실히 유권자들의 상태를 변화시켰지만, 뻔히 예상할 수 있는 주류 언론의 코빈에 대한 무자비한 악선전이 차곡차곡 그의 인기를 갉아먹을 것으로 보였다. 코빈의 정책에 반대하는 노동당 하원의원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노동당이 차기 총선에서 승리한다 할지라도 코빈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소수 의원들만으로는 급진적 정책을 추진하기가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어려울 것으로 보였다. 정부를 운영한다는 것은 급진적 정책을 기존 제도의 틀 속에 얹맨다는 뜻이고, 복지부동의 공무원들과의 싸움이라는 진흙탕에 빠뜨린 다음, 당 방침에서 하나씩 빠지면서, 타협안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러한 양보안에는 조합원의 일자리를 위협할 어떠한 정책에도 심기가 불편할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요청한 것도 포함될 텐데, 그러다 보면 애초의 계획에서 급진적 잠재력은 거의 탈각될 것이다. 투자자들의 투자 거부 또는 대출 거부로 인해 생활 수준 하락이 발생하고 대중적 지지도 빠져나갈 것이다. 그렇다면 ‘신좌파’의 전성기였던 1960년대~1980년대보다 2018년 영국에서 ‘사회주의

로 가는 의회적 길'이라는 생각이 덜 허황되게 들릴 이유가 있는가?

세계화에 대한 반작용

의회를 통한 사회주의가 20세기 후반기보다 21세기에 더 가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주된 이유는 세계화의 효과에 대한 대중적 불만이 마침내 자본주의까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신자유주의에 대한 미몽에서는 깨어날 정도로 구체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러한 감정을 우파적으로 배출하는 출구인 UKIP에 상응하는 좌파적 출구가 없었다. 블레어와 브라운 시절의 노동당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세계화를 받아들였다. 신노동당 의원들은 탈산업화된 노동계급 핵심지를 안전한 의석으로 여겼지 경제적, 사회적 퇴행에 따른 도전과제로 생각하지 않았다. 켈더뱅크와 오코넬은 아래와 같이 썼다.

신노동당의 전략은 전통적인 노동당투표 지역으로, 대부분 노동계급 선거구로 노동당의 안정의석이 몰린 지역에 대한 무관심을 가까스로 숨겨왔다. 대처의 영국 탈산업화, 고실업, 약물중독 증가, 노동시장의 저숙련-저임금화, 일상적인 비정규직 착취로 상처 받은 공동체의 분노를 대변하는 대신, 신노동당은 '세계화의 혜택'을 환영하면서, 금융부문의 규제를 풀고, 공공 부문에 더 많은 민간 자본을 투자했고, 대처의 반노조 법을 환영했다. '핵심 투표층'이 뭘 하든 무슨 상관인가. 어차피 노동당에 투표할 텐데, 토리는 더한 놈들이니까.

금융위기가 발생한 지 2년 후인 2010년, 노동당은 대규모 공공지출 감축 정책을 추진한 보수당과 자유민주당의 새 연립정부에게 실각했다. 당의 패배에 대한 대부분의 노동당 하원의원들의 대응은 정책을 더 오른쪽으로 옮긴다는 것이었다. 2010년 고든 브라운의 뒤를 이어 당수가 된 에드 밀리반드는 이에 반대했지만, 다음 선거 승리를 위해서 당의 정책을 좌클릭하기 위한 내부 투쟁의 위험을 무릅쓰지 말고 연립정권이 추진한 긴축정책의 인기 없음에 기대야 한다는 고문위원들의 말에 설득되었다. 그리고 지출 삭감으로 인해 수만 개의 공공 부문 일자리와 그 일자리를 통해 제공되던 돌봄 서비스나 도서관 같은 사회 서비스가 사라지면서, 고통은 구산업지대뿐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체감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노동당의 득표는 거의 증가하지 않았고, 보수당은 재집권에 성공했다. 따라서 코빈의 출마는 드디어 대중의 불만이 좌익적으로 배출될 수 있는 첫 배출구가 주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연이은 지도부 선거 승리, 신규 당원의 대규모 입당(2010년 20만 명을 밀돌던 당원은 2017년 말이 되면 55만 명 이상으로 늘어난다), 좌파 노동당 활동가들이 모인 유력한 조직인 모멘텀의 출현, 2017년 선거의 극적인 선전이 그 결과였다.

코빈과 코빈 그룹의 좌파 의원들 소수는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놀랐다. 이전에는 그 가능성을 시험해 본 적도 없던 여론의 이동이 그의 지명에 대한 응답으로 나타난 것이었다. 그가 가는 곳마다 그의 말을 듣고 응원을 보내기 모인 엄청난 군중들은 흥미를 잃을 수 있다. 굳이 2022년까지 갈 필요도 없을 다음 총선에서 대중의

지지가 노동당 승리를 위해 필요한 정도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 노동당이 다음 선거에서 승리한다 하더라도, 사민주의를 넘어 자본주의에 대한 진정한 도전으로 귀결될 조치는 말할 필요도 없고 당장 2017년 마니페스토에서 약속한 온건한 사회민주적 조치에 대해서조차 예상되는 당 소속의 많은 하원의원들의 저항도 더한 자본과 언론 동맹의 맹렬한 반대를 정부가 굴복시킬 수 있을 만큼 대중의 지지가 강할 것인가? 이게 좌파가 대답해야 할 질문들이었다.

코빈 팀의 멤버 한 명이 간결하게 요약한 바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는 '사민주의적 개혁을 통해 사민주의를 넘어선'다는 생각인데, 이는 확실히 에두아르 번스타인의 '진화 사회주의'의 전통에 있고, 룩셈부르크와 카우츠키에서부터 랄프 밀리반드, 레오 파니히까지 줄줄이 있는 비판자들의 반대에서 벗어날 수 없다. 코빈 팀을 이끄는 지도부는 이러한 논쟁에 대해 잘 알고 있었지만, 이 문제에 대해 신경을 안 쓰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아마도 사회주의로 가는 그런 경로는 없을 수도 있지만, 미리 알 수는 없는 일이다. 영국 사회와 경제의 참혹함, 지배 계급의 무능과 기회주의, 평화와 생물권(生物圈)에 대한 위협은 모두 행동에 대한 절실한 필요성을 의미하고, 대중은 1945년 이후 어느 때보다 급진적인 변화에 대해 더 준비가 된 것처럼 보였다. 행동할 의무, 이전 백 년 동안 축적된 모든 경험을 활용하고, 사회주의적 진전의 가능성을 한계에까지 밀어붙일 필요가 있었다.

어떤 유력한 활동가는 이 프로젝트를 아래와 같이 묘사한 바 있다.

장기적 목표는 힘의 균형과 소득과 부의 균형에서 급진적인 변화를 달성하는 것이고, 이 변화는 정치, 경제, 사회적 변화일 것이다. 그리고는 이 목적을 위한 단계별 조치로는 돌아가 무엇을 할 것인지 정해야 한다. 기본은 서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큰 변화를 꾀할 수 있도록 선거에서 이기는 것이다. 권력과 함께 정치적(국가의 민주화), 경제적(탈사유화, 노동과 경제생활의 민주화), 사회적 변화를 만들어 내야 한다. 즉 사회적 세력 균형에 변화를 주어야 한다.

이제 다음으로는 첫 임기 안에 몇 가지 주요 조치들을 통과시키는 것이다. 이 조치들은 또한 헤게모니를 바꾸는 데 기여해야 한다. 그것은 급진적인 동시에 반대 세력도 끌어들이야 한다. 현재 무력화되고 있는 고든 브라운의 세액공제와 같은 은밀한 개혁이 아니라, 되돌릴 수 없는 최저임금과 같은 개혁이어야 한다. 핵심은 개혁이 급진적이면서 동시에 상식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법의 정교함이 놀라울 정도다. 전략적인 고려와 기술적인 고려의 혼합, 헤게모니 투쟁(그람시의 '진지전')의 단기 계획('기동전')과의 통합, 그리고 국가 조직과 투쟁 그 자체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강조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 모든 요소들은 결정적으로 중요하며, 이 요소들을 이러한 방식으로 결합하는 것은 이전 노동당 정부들에선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코빈의 기획에서 가장 특색 있고, 미래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화에 대해 충실하다는 점이다. 당권 선거에 입후

보하기로 한 최초의 결정에서부터, 노동당 의원 대다수가 사퇴를 종용했을 때 이를 거부함으로써, 선거 캠페인의 전례 없는 성공에 이르기까지, 코빈의 성공의 열쇠는 길거리에 나온 수천 명 사람들의 지지였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그의 성격과 스타일, 즉 침착하고, 겸손하고, 정직하고, 호감형인 것과는 관련이 있지만, 정치에 대한 그의 생각이 한 몫 했다. 다른 유럽 국가의 어떤 좌파 지도자들과는 달리 그는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로서 자신에 집중해 달라'고 하지 않았다. 그는 항상 사회운동가들 사이에 함께 할 때나 보통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가장 편하게 느꼈고, 그들이 정당의 정책에 기여하도록 하고, 정책이 법안으로 제정되어 실행되기까지 지원하는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도록 권하는 사람이었다. 코빈은 '풀뿌리 운동가들 사이에서 거의 누구나 존경을 하는 소수의 국회의원들 중 한 명이었다.... [그]는 여러 해 동안 다양한 목표를 가진 굉장히 많은 집회와 회의에서 연설을 했기에, 처음부터 단단한 지지기반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것은 2017년 선거 이전과 마찬가지로 선거 이후에도 코빈의 리더십을 규정했다. 긴급한 전략적 문제에 대한 결정이 필요했던 선배 동료의 부러움 섞인 불평을 들어보자면, '제레미는 일주일에 4일을 밖으로 돈다'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개인적인 선호만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다. 그것은 1970년대와 1980년대 신좌파가 채택한 원칙, 그리고 블레어-브라운 시절 하향식 정당 운영 때문에 당의 지지기반을 대표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중요한 측면에서 보수당과 구별하기 어렵게 된 데 대한 대응으로 강화된 그 원칙이었다. 투쟁의 다음 국면에 대한 가장 큰 질문은 과연 이러한 민주적 운영에 대한 약속이 얼마나 정상화되고 일반화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는 당 내부와 당과 유권자의 관계에서 모두 제기되는 질문으로, 이를 통해 당원과 유권자가 계속 진정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모멘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의 핵심 요소는 코빈의 첫 당권 도전 캠페인을 위해 몰려든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 만든 노동당 활동가들의 새로운 단체인 모멘텀(Momentum)이 어찌 될 것인가에 있을 것이다. 노동당에는 이미 좌파 그룹들이 있었다. 특히 소위 벤 좌파 시절로부터 이어 내려온 노동당 민주주의를 위한 캠페인(Campaign for Labour Party Democracy: CLPD) 같은 조직은 그 핵심 활동가 존 램스먼이 30년 이상 지난 지금 갑자기 모여든 수천 명의 열성스러운 지지자들을 모아 모멘텀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처음에는 스마트폰 앱을 사용해 크건 작건 지역 조직이 가가호호 선거 방문을 할 수 있도록 한 급조한 선거 캠페인 조직으로 시작되었다. 이 조직은 잇달은 선거를 차례 차례 대응하면서 확장되었다. 2018년 봄이 되면 모멘텀은 회비를 내는 회원 41,000명, 약 50만 파운드에 달하는 예산, 그리고 20명의 상근 직원을 보유한 조직으로 성장한다. 모멘텀의 전국 조정 그룹의 의장이 된 램

스먼에 따르면, 모멘텀 멤버들은 정치적 행동주의를 약속한 약 4만 명의 노동당 당원들 중 약 2-3,000명에 불과했다고 한다. 그러나 모멘텀의 전국 사무국에서 조율한 결과 구성원들에게 숫자 이상의 자신감과 무게감이 실렸다. 특히 젊은 회원들의 디지털 기술은 조직에 SNS 상에서 엄청난 효과를 발휘했다.

시리자와 포데모스와 같은 유럽의 다른 새로운 좌파 조직들과 마찬가지로 모멘텀은 평화운동가나 세입자 주거권 활동가에서부터 구 공산당원에 이르기까지 많은 다른 조류로 구성되었고, 초기에는 이들을 통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과반수 우파 노동당 의원들과 대부분은 아니라도 상당수가 블레어 총리 시절 임명되었고 또한 코빈에게 적대적이었던 400명이 넘는 당의 상근 직원들의 장악력을 깨뜨리고 사회주의 후보들을 위한 선거 운동을 위한 내부 세력으로 모멘텀을 사고했던 경향이 하나 있었다. 또 다른 경향은 당원과 사회적 행동주의를 결합하여 문화적 변화를 추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약간의 갈등 끝에 2017년 초에 내규가 채택되어 이러한 긴장감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지역 당원들이 온라인으로 선출한 무시할 수 없는 인원의 소수와 대표들과 노동조합과 다른 중앙 단체(CLPD 포함)가 지명한 크지 않은 다수와 대표들로 구성된 전국 조정 그룹이 광범위한 정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러한 광범위한 정책 안에서 회원들은 지역별 우선순위를 선택하고 자기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조직할 수 있다.

모멘텀의 장기 잠재력에 대해서는 많은 것이 불확실하지만, 적들은 모멘텀의 이를 과장하려는 경향이 있고, 거기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예를 들어 모멘텀의 주요 당내 경쟁자인 블레어계 그룹 '프로그레스(Progress)'는 2016년에 2,382명에 불과했고, 청년 부문에서는 50명밖에 없었다. 노동당 우파는 모멘텀을 '권력 장악'에 열중한 마르크스주의 광팬과 이상주의적 멍청이들 집단으로 터무니없이 비하했고, 주류 매체는 모멘텀을 끊임없이 비방했는데, 그것은 모멘텀의 실 역량보다 더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한 것이 사실이지만, 어쨌든 모멘텀은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이었다. 모멘텀의 동원 능력과 조직가들의 디지털 역량은 당대표 선거와 2017년 총선에서 좌파의 성공에 결정적으로 중요했다. 당 지도부는 모멘텀의 조직 기법을 점차 채택하였고, 2018년 초 당수 직속의 지역공동체 캠페인 조직을 출범시켰다. 이 조직은 이전 핵심 노동당 지역구를 조직하기 위해 상근 현장 활동가를 채용하였는데, 그 중 몇몇은 모멘텀 상근자들로 충원되었다.

모멘텀은 지역구 선거뿐 아니라 당직 선거에도 적극 참여함으로써 당 내부의 세력 균형을 바꾸는 데도 상당한 역할을 했다. 2017년 말, 마침내 전국집행위는 코빈파가 다수를 차지했고, 사무총장과 몇몇 고위 당직자들은 코빈 지지자로 교체되었다. 당수 직속의 홍보국장은 처음부터 코빈의 긴밀한 후원자였다.

좌파 후보들을 될 만한 지역구 의원직에 앉히기는 훨씬 더 어려웠다. 블레어 총리 시절, 당의 전국 의회 위원단은 좌파 성향의 잠재적 후보들을 무자비하게 배제했고, 그 유산으로 남은 과반수 블레어계파 의원은 코빈 기획의 가장 크고 직접적인 장애물이 되었다. 2017년 선거 후, 약 75개 선거구에서 새로운 후보들을 뽑아야 했

다. 공천된 사람들 중 절반 가량은 지역 모멘텀 활동가들의 지지를 받는 좌파 후보였다. 모든 지역구가 당선 가능한 지역이었지만, 이들이 다음 선거에서 모두 승리하더라도 국회 내의 세력 균형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사회주의 정책에 대한 지지 확보는 여론이 사회주의 쪽으로 얼마나 더 큰 폭으로 움직이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다.

모멘텀의 전국 코디네이터 로라 파커가 아래와 같이 요약한대로 모멘텀의 외향적인 작업이 중요한 시점이다.

모멘텀은 당의 대안적인 정책결정 기관이 아니다. 우리는 제레미를 위한 일종의 호위대로 만들어진 조직이다. 그를 당선시키고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인 것이다. 그것은 전문시위꾼들이 아니라 새로운 캠페인 방법을 개발한 혁신자로 바라봐야 한다. 예를 들어, 보편적 기본 소득과 보편적 기본 서비스와 같은 현재 이슈에 대한 논의를 촉진하면서, 우리의 일은 그것을 '확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더 나아가서 지도부에 도전하지만, 도발적이지 않고 정교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단기 계약직으로, 돈에 쪼들리고 주거 때문에 고생하는 불안정한 삶을 살지만 또한 훨씬 유동적인 삶을 사는 21세기에 정당이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사람들은 더 이상 한 가지 신문만 읽고, 두세 개의 TV 채널을 보면서 자라지 않는다. 당은 이와 어떻게 관계 맺을 것인가? 사람들은 당의 지구별 모임에 갈 시간이 없다. 그렇게 해서 얻는 것이 무엇인가? 그들은 집에서 노트북을 사용하든, 거리에서든 실제로 정치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느낄 필요가 있다.

우리는 제레미가 사임한 후에도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강해지고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그가 제시한 이행적 의제는 단 한 번의 임기로 될 일이 아니다.

실천적으로 보자면 노동당 활동가들은 모든 종류의 지역 투쟁에 참여하고, 노동조합과 사회운동 단체에 가입했으며, 모멘텀의 중앙 상근자들이 제공할 수 있는 비디오와 같은 추가적인 자원을 만들었다. 지역 투쟁과 기획을 노동당이 주도하는 투쟁과 기획으로 만들려는 목적이 아니라, 정당으로서 노동당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투쟁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리고 세입자 권리부터 결사의 자유, 이민자 권리 등 서로 다른 영역의 투쟁을 한데 묶고 그것을 보다 광범위한 사회주의적 전망이라는 맥락에 위치 지으려는 것이었다.

장기적으로는 이 활동은 사회주의 기획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민주화에 분명히 중요할 것이며, 선거와 선서 사이 사기 진작 및 활동력 유지에도 중요할 것이다. 2016년 코빈의 당수 재선 성공 이후 노동당 활동가들 사이에선 흥분과 방향감각의 상실 이 뚜렷하게 관찰되었는데, 이는 다음해 테리사 메이 총리가 총선을 실시하기로 했을 때에야 반전된 적이 있다.

당에 대한 모멘텀의 가치는 인정되지만, 독립적으로 살아남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정책 및 우선순위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당 지도부가 모멘텀이 추구하는 분권형 민주주의 문화를 억제하고 싶어질 미래의 어느 시점을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선거 승리

좌파들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노동당이 좌파 강령을 가지고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만약 노동당이 2017년 선거에서 자신의 입지를 극적으로 향상시키지 않았다면, 지도자로서 코빈의 지위는 새로운 위협에 직면했을 것이고, 이는 별 소득은 없더라도 보수당 정부보다는 블레어와 브라운 노동당 정부를 선호했던 노동조합도 마찬가지로 합세했을 것이다. 대신 2017년 선거에서의 얻은 득표 덕분에 코빈 지도부 아래에서 다음 선거 승리가 예고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영국의 선거 제도 하에서는 의회 과반수 획득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만약 노동당이 투표에서 자신의 몫을 40퍼센트에서 심지어 43퍼센트로 올린다 하더라도 반드시 과반수를 확보하지는 못할 것이다. 2015년 이후 자유민주당의 득표력이 붕괴된 덕분에, 그리고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UKIP의 지지표가 사라진 데 힘입어 당분간 유권자들은 노동당과 보수당 사이에서 양극화가 심한 상태이다. 그 결과 2017년 코빈이 이끄는 노동당은 40퍼센트의 표를 얻었지만 겨우 266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반면에 그와 비슷한 2001년 블레어의 득표율(40.7%)로는 412석을 얻어 전체 과반수를 차지할 수 있었다. 그것은 2001년에 실시된 투표의 27%가 자유민주당, UKIP, 그리고 민족주의 정당에게 돌아갔기 때문에 소선거구제 아래서 이들은 그에 상응하는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노동당이 다수당이 되기 어려운 이유로는 노동당의 유권자들은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어 비례대표제 아래서라면 더 많은 의석을 얻을 수 있었겠지만 선거구별로 승리를 하려면 표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현재 650명의 하원의원 수를 다음 총선에서부터 600명으로 감축하기로 예정되어 있는데, 이 때문에 선거구 재확정이 필요하며, 이는 아마도 노동당의 문제를 악화시킬 의도로 계획되었을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 그렇게 예상된다.

노동당 우파는 이 모든 조건 때문에 아슬아슬 선거구의 부동층 유권자들에게 소구할 수 있는 '중도' 강령으로 되돌아갈 필요가 있게 한다고 주장한다. 모멘텀의 활동가들은 과거에 투표를 하지 않는 편이었던 젊은 노동자 계급 유권자들을 더 많이 투표장으로 동원할 수 있고, 노인 유권자들의 표를 되찾을 수 있다면 그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는 2017년에 호소력을 가졌던 정책들을 개발하여 다음 총선 전까지 수 년 동안 설득력 있게 만들 수 있느냐, 그리고 노동당 활동가들이 대중동원을 얼마나 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그것은 또한 지도부가 주류 언론이 증폭하는 당 내의 우파들의 냉소적인 내부 총질을 제압할 능력을 증명하는 지 여부에 달려있다. 2018년 초 몇 달 동안 코빈은 처음에는 체코슬로바키아의 스파이로 활동했다는 비난을 받다가, 나중에는 푸틴의 협력자라는 고발이 있었고(푸틴이 영국에 살던 전 러시아 스파이의 독살을 명했다는 영국정부의 증거 없는 주장에 동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마침내 반유대주의에 온

정적이라는 비난까지 받았다. 신문과 BBC는 한 목소리로 노동당이 반유대주의의 온상이며 코빈이 이를 묵인했다고 주장하는 가짜 뉴스를 톱 기사로 실었다. (보수당과 연계된,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의) 유태인 의원회는 코빈을 비난했고, 일부 저명한 우파 노동당 의원들이 의회 밖에서 대중 집회에 동참했다. 일부 온라인 소식통만이 이러한 주장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으며,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지를 반유대주의와 의도적으로 엮는 데 대한 문제를 제기했으며, 코빈이 총리가 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이스라엘 정부가 노동당의 일부 인사를 장려하고 심지어 재정까지 지원하려 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그 시기는 5월에 있는 지방 정부 선거에 임박해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명확했고, 런던에 남아있는 2개의 보수당 시의회 중 적어도 1개를 노동당이 탈환하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었다.

코빈이 체코슬로바키아의 스파이였다는 혐의는 빠르게 논박되었고 일각에서는 그것이 코빈에게 오히려 유리한 역풍을 불러일으켰다고 봤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끊임없는 미디어의 생채기 내기가 누적되면 선거에서 실제 상처를 입을 수 있을 것이다. 코빈의 가릴 것 없는 정직함은 좌파의 가장 큰 선거 자산이었다. 만약 우파가 그를 덜 양심적이거나 순진해 보이거나 약해보이는 데 성공한다면, 극히 중요한 다음 총선에서 승리한다는 좌파의 전망, 이미 확신과는 거리가 먼 이 전망에 심각한 타격을 미칠 수 있다.

마지막 문제는 브렉시트다. 야당일 때 코빈은 아주 분명한 입장을 취하지 않아도 괜찮았지만, 노동당은 보수당 못지않게 이 문제에 대해 분열되어 있었다. EU와의 최종 합의가 어떻게 나오든 EU 노동자들의 영국으로의 무제한 이주가 계속 허용된다면 2017년에 '탈퇴'에 많은 표를 던졌던 노동당의 구 심장부의 의석을 잃을 것이나, 2017년 총선에서 유의미한 지지를 보냈던 청년 유권층과 일반적으로 고학력 중산층 노동당 지지 유권자들은 대부분 '잔류'에 투표했었다. 무엇보다도 이주를 놓고 봤을 때 두 지지층의 표를 모두 희생시키지 않을 수 있는 브렉시트 정책을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려워 보였다. 포스트 유럽연합을 통한 사회주의적 발전 전망은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다.

정강 그리고 장애물

노동당의 2017년 선거 선언문인 '소수가 아닌 다수를 위하여'가 언론에 유출된 지 이틀 후, 데일리 미러는 다음과 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철도, 로얄 메일, 에너지 산업을 재국유화 하는 것은 각각 거의 국민 절반의 지지를 받았고, 반대는 약 4분의 1에 불과했다. 71%는 0시간 계약 금지를 원했다. 63퍼센트는 어떤 회사가 공공계약을 입찰하면 자신의 최고 임금을 받는 임직원과 최저 임금 직원 사이에 최대 20:1의 임금 비율을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급진적인 방안을 지지했다. 영국 정치에서 오랫동안 금기시되어 온 부유층 과세는 큰 성공을 거두었다. 토리당 유권자의 절반 이상을 포함한 65퍼센트의 사람들은 8만 파운드 이상 수입

에 대한 소득세 인상에 찬성했다.

등록금 면제, 긴축으로 인한 공공부문 노동자의 임금 상한제 철폐, 국민연금 보장, 성별과 인종 임금 격차 해소 등도 폭넓은 지지를 얻었다. 그러나 알렉스 번스가 지적한 것처럼, '전체는 모든 부분의 합보다 컸다. 종합적으로 보면 사회가 얼마나 전적으로 다른 노선에 기반하여 조직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이 사회를 규정하는 주제는 집단주의와 보편주의로 오랜 세월을 걸친 개인주의와 자산 검증 기반의 선별적 복지주의의 뒤를 이어 등장한 것이다.'

다수 유권자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지 여부는 노동당 지도부와 노동당 활동가들이 정당의 다른 요소들을 잘 결합시키고, 그것을 평범한 상식 이상으로 보이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리고 만약 노동당이 승리한다면, 그 정당의 실현가능성은 글로벌 시장과 매우 긴밀하게 통합된 기업 부문의 맥락에서 주주와 투자자, 보수당, 언론, 런던 금융가, 재무부, 공무원, 딥 스테이트, 미국, 나토로부터 예상가능한 맹렬한 저항에 직면하여 당이 대변하던 긴축정책과의 급진적인 결별과 당이 가지고 있던 급진적 사회민주적 조치 강령을 얼마나 끌고 갈 수 있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다.

그러나 2018년 초부터 격렬해지기 노동당에 대한 공격을 고려하면 우파가 코빈 지도부의 공고화를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2017년 선언문의 사회민주적 성격이 얼마나 온건한 것이었는지를 생각하면 당혹스럽긴 하다. 다음은 주요 공약들이다.

- 상수도, 철도 및 로열 메일(Royal Mail)을 재국유화(탈사유화)하고 에너지 분야도 점진적으로 재국유화한다.
- 국가 기반 시설에 10년 동안 2천500억 파운드를 투자할 국가 혁신 기금 설립, 경제를 활성화하고 재균형화를 위해 10년 동안 2천500억 파운드를 추가로 대여할 국가 투자 은행 설립
- 노동자의 법적 권리를 회복하고 0시간 계약 및 위장자영업과 같은 초과착취적인 고용 관행 종식
- 대학 등록금 폐지, 학생을 위한 생활비 지원을 복원, 학급 규모 축소, 무상 보육
- 국민건강보험을 파탄 내고 의료 서비스를 점진적으로 사유화하는 법안을 폐지
- 공공 주택 연 10만 채를 건축하고 민간 임대 부문의 임대료 인상을 통제
- 조세 회피 방어, 법인세 및 고소득 납세자에 대한 세금 인상 등을 통해 약속한 투자와 개혁 비용 충당

상식?

이것은 분명히 '평범한 상식'으로 보일 수 있는 강령이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방식으로 서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고, 급진적인 성격도 분명했고 반대도 불러일으켰던 '획기적인' 조치들을 포함시켰다(그 조치들은 곧바로 스탈린주의

적, 경제 무식, 모순되고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비난 받았다). 시행만 된다면, 이 조치들은 새로운 질서를 상징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소요될 재원을 위한 세금 인상은 세금 회피로 악명 높은 기업들과 호황이든 위기든 모두 성공을 거두었던 부자들이 감당할 것이었다. 그리고 노동자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은 권력의 사회적 균형에 중대한 변화를 암시했고, 오랜 동안의 실업과 노동조합 쇠퇴로 산산조각 난 노동계급의 자신감을 잠재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시작이 될 것이었다. 빠진 것도 많았고, 취약점도 많았다. 조기 총선이라는 조건에서 빠르게 작성해야 했던 탓도 있었다. 우호적인 비평가들은 훨씬 더 급진적인 조치가 필요한 정책 분야를 지적했고, 다른 이들은 코빈이 오랫동안 반대해온 핵발전과 핵무기에 대한 입장을 관철시키지 못한 것을 언급했다. 이는 영국 최대 노동조합인 유나이트가 핵 산업에서 조합원들의 일자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데서 기인했다. 또한 앞으로 두 세대 안에는 다른 대부분의 우려들을 압도할 사안인 지구상에 인류의 생태학적 공간 축소라는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관심을 기울이지도 못했다. 제레미 길버트가 지적한 바와 같이, 선언문은 '생태적 재앙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경제성장에 대한 산업자본주의의 집착에서 벗어나 경제 우선순위의 급진적인 방향 전환'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 선언문에서 크게 빠진 사회주의 기획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국가의 민주화를 위한 어떠한 실질적인 조치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영국이 근본적 수준에서 작동하는 방식을 개혁하는데 필요한 검토와 제언을 위한 제한의회'를 구성하겠다는 공약과 상원의원 선출제에 대한 공약, 그리고 투표 연령을 16세 하향에 대한 공약은 있었지만, 그 이상의 구체적인 것은 없었다. '왕실 특권'과 그 밖의 구습의 제도를 통한 행정력의 무책임한 행사를 종식시키고, 성문헌법을 만들며, 선거 제도를 보다 민주적으로 한다는 제안은 없었다. 기업에 의한 국가의 포획, 즉 공무원 감축, 규제되지 않은 기업 로비의 막대한 영향력, 고위 공무원과 민간 기업 간의 '회전문 인사,' 각 정부 부처에 설치되어 민간 부문 인사들이 포진한 기업형 '실행위원회' 같은 것들을 종식시키기 위한 기획도 없었다. 주거래처가 기업인 경영컨설팅 회사에 의존하거나 겉으로는 정치적 중립인 공공서비스지만 실제로는 자본주의 국가 제도의 핵심요소인 BBC의 비민주성에 기대는 것을 포기하자는 제안은 끝끝내 없었다. 부자들이 국가와 기업의 엘리트 위계 속에서 자신들의 지배적인 지위를 지속적으로 재생산하기 위한 사립학교에 대한 보조금 폐지 공약도 없었다.

그러나 2017년 선언의 의제에서 더 찾아보기 힘든 것은 1970년대 루카스 항공(Lucas Aerospace)의 현장위원과 힐러리 웨인라이트가 추동한 1980년대 런던 카운티 의회(London County Council)에서 실험한 노선, 일반인들의 전문성과 통찰력을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공공 소유에 대한 사고였다. 감언이설과 그릇된 정보로 인해 손상된 '공적 영역'에 필요한 국가 및 공공 서비스의 각 수준에서 새로운 형태의 책임성에 대한 제안도 없었다. 그러나 2018년 2월 존 맥도널이 행한 연설에서 보다 급진적인 사고의 몇 가지 중요한 징후를 발견할 수 있

다. 이 연설에서 그는 공공 인프라와 서비스가 공공의 통제로 돌아가면 노동자와 서비스 이용자들이 그 관리를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과거의 국유화된 산업을 재창조하려 해서는 안 된다. ... 경영진이 너무 먼 존재이고, 너무나 관료적이며, 최전선에서 서비스를 제공한 있는 사람들의 현실에서 너무 동떨어진 그런 모델에 향수를 가져서는 안 된다. 필수 산업을 시장의 변덕으로부터 떼어내는 것은 이윤이 투자와 고용 결정을 추동하는 원동력이 아니게 될 수 있는 기회다. 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산업들에 종사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의 손에 맡길 기회라는 것이다.

재국영 서비스를 관리하기 위한 공공업무의 역량도 검토되고 있었고, 보편적 기본 소득뿐 아니라, 교육 및 의료 외에 다른 기본 서비스를 보편적(즉, 무료)으로 만들기 위한 실용적 가능성도 탐구되고 있었다.

노동당 내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새도우 캐비닛에서조차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지지될 지는 두고봐야 할 일이다. 하지만 2017 선언을 넘어서기 위한 의지는 명확했다. 2017년 선언문을 넘어서겠다는 의지도 뚜렷했다. 그리고 자유주의 논객들조차 현재 영국에 존재하는 퇴화된 대의국가가 지난 여러 정권의 연이은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이 있고, 이는 차기 노동당 정부가 감당할 수 없으리란 점을 인식하고 있다.

실현가능성

선언 강령의 전반적인 실현가능성을 고려할 때, 극복해야 할 주요 장애물이 4가지 있다. 당내 우파 의원, 국가, 주류 언론, 그리고 자본이다.

가장 명백하고 즉각적인 장애물은 다수 노동당 의원들의 적대감이었다. 만약 이들이 당에 남아 2017년 같은 선언문을 가지고 다음 선거를 치른다면, 이들은 임기 중에는 선언을 지지해야 할 의무를 진다. 하지만 지역 당원들이 당내 경선에서 지역 당원들의 불신임으로 의석을 잃지 않을 수만 있다면 그 시행을 방해하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될 것이다. 이처럼 많은 국회의원과 당원간의 태도 차이를 감안하면, 1979년 신좌파에 의해 도입됐다가 1980년대 좌파가 패배한 후 폐기된 정책인 모든 국회의원의 강제 재선정을 재도입할 강력한 근거가 있다. 자기 의석에 대한 영구적인 권리를 지닌 직업 정치인이라는 관념은 민주화된 정당 개념과 양립할 수 없다. 그러나 코빈은 재선정 제도를 배제하고 있는데, 당 밖에 산적한 사업을 우선해야 할 시기에 블레어계 의원들과 직접 대립하면서 당내 투쟁에 에너지를 뺏기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선정 제도가 없으면 지도부로서는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킬 방법이 거의 없으며, 다수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반대는 여전히 코빈 프로젝트의 가장 심각한, 그리고 실제로 더 (장기적인) 약점으로 남아 있다.

국가로부터의 저항은 여러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신자유주의적 가치와 절차에 표준화된 전문가적 생각을 가진 대부분의 기존 공무원들에 의한 무의식

적 흡수일 것이다. 게다가 '새로운 공공관리'와 긴축으로 2008년과 2017년 사이에 영국 공무원의 5분의 1이 감소되었다. 고위 공무원단(정책 수립 및 시행)이 계획과 실행 능력이 모두 부족할 정도로 축소되었다. 2017년 선언에서 계획된 탈사유화와 재규제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종류의 공무원과 관리자들을 모집해서 훈련시켜야 할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국가는 사회 민주주의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기관으로 재건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취임한 후 이러한 장애물들을 만나기 전에 준비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 선언에 규정된 모든 경제적 조치들이 의회에 의한 1차 입법이나 심지어 새로운 정부지출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철도의 경우 민간 철도 회사들의 영업권 기한이 종료되면 자동적으로 공공 소유로 되돌아갈 것이다. 많은 관심을 끈 공약인 대학 등록금 철폐는 학생 연령대의 절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이 또한 현재 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에 대한 정부 지원(총 대출금의 45%가 상환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지는 않을 것이다. 구조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목적 달성에는 확연히 실패했고 수 백만 사람들의 빈곤만 가중시켰던 긴축의 효과는 한 가지 있었다. 사람들이 공적 재정에 대한 어떤 공식적인 선언도 믿을 수 없다고 믿게 되었던 것이었다. 그 결과 공공 인프라, 지역 재개발, 보건, 교육 서비스에 대한 지출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

인쇄매체에서 온라인 뉴스로, 주요 방송사와 신문에서 소셜 미디어로의 이행은 좌파에서 이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2017년 선거는 데일리 메일과 다른 우익 신문들의 코빈에 대한 히스테리적인 공격이 유효하게 먹히지 않았던 최초의 '탈-타블로이드 선거'라는 이야기가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금이 많이 투입된 소셜 미디어 또한 우파에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BBC와 우익 언론이 보여주는 막대한 정치적 편향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심각한 중장기적 핸디캡일 것이다. 언젠가는 그것에 맞서지 않는 정치적 비용이 그것을 공격하는 비용보다 더 커질 때가 올 수도 있다.

네 번째 장애물, 즉 기업의 소유주나 국채 매입자의 저항은 예측 가능하고 피할 수 없다. 실물경제는 이미 수십 년에 걸친 투자부족으로부터 약세를 보이고 있으며, GDP의 6%에 상당하는 경상수지 적자는 지속불가능하고, 그 결과 실물경제에 관심이 없는 글로벌 금융서비스 부문('더 시티')의 외환가득액에 의존하고 있다.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가정하더라도 경제성장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측되는 브렉시트는 이러한 모든 문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코빈 정부가 적당한 금리로 차관을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단호한 사민주의 경제 정책을 취해도 기업들이 투자를 재개할지 여부는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는 변수(known unknowns)다.

그러므로 노동당 정부는 기업의 적대감으로 인해 경기 침체와 일자리 감소, 그리고 상당한 비용을 수반하는 어떤 정책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 예비내각 재무장관 존 맥도넬은 2017년 가을, 이러한 만일의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계획이 마련되어 있다고 말했다(그게 뭐인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만

하다). 장기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업의 투자 거부에 대한 논리적 대응은 자본 통제 조치를 부과하고 투자의 결정을 은행으로부터 국가로 전환하는 것이지만, 이는 시티오브런던의 세계적인 역할에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쉽게 감당할 일이 아니다.

다시 한 번, 성공의 필수 조건은 대중의 이해와 지원이 될 것인데, 2018년에는 그런 종류의 어려움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맥도널은 2018년 6월 광범위한 주제를 다룬 연설에서 국가 주도의 경제 변혁을 위한 통합적인 계획을 설명했다. 금융 부문으로부터도 지지가 두텁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여기에는 국영 지역 투자 은행과 전략 투자 위원회 외에도 영란은행이 (인플레이션 통제뿐만 아니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고 영국의 '하이 스트리트' 은행들이 부동산에서 생산적 투자로 대출을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는 그 자체로는 급진적이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신자유주의적 사고에서 사회민주주의적 사고로의 결정적인 전환을 예고하는 것이다. 그러나 합리적인 어조와 실현가능하게 보이는 의제에도 불구하고 그 연설은 널리 보도되지 않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국가의 경제 관리 능력을 회복하려는 노동당의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또는 어떤 분야와 부문을 시장에 대한 노출로부터 제외하고, 사회주의 변혁의 전제조건인 국가의 수출 역량을 재건하기 위한 계획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다. 더 큰 위험은 주요 경제 부문에 조합원을 보유한 데 더해 당 내에서 전략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유나이트는 물론이거니와 다른 노동조합들 역시 노동당 정부의 정책이 단기적으로 조합원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설사 장기적으로 일자리 증가로 귀결된다 하더라도 지지를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정부가 될 준비

만약 다음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노동당 지도부를 기다리고 있는 도전에 대해 생각할 때, 2015년에 그리스에서 영국과 유사하게 반신자유주의 정서를 타고 집권한 시리자의 경험을 살펴보는 것이 유익하다. 결국 신자유주의 '트로이카'(EU 중앙은행, 유럽위원회, IMF)의 요구에 굴복하여 극단적인 형태의 긴축을 받아들인 그리스 말이다.

시리자의 주요 활동가인 안드레아스 카리치스는 시리자의 실패는 단지 그리스 유권자가 유로화를 포기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만이 아니라, 시리자 자신의 실패 때문이기도 하다고 주장해왔다. 결국에는 시리자가 기존의 대의 체계와 기존 국가를 통해 평등주의적인 사민주의 질서를 창조하려 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대신에, 그는 어느 나라건 좌파들은 사람들이 세계 경제를 포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미 보유한 노하우와 실용적 경험에 의존하는 새로운 종류의 네트워크화된 지역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지 않으면 세계 경제의 제약과 규범에 갇히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힐러리 웨인라이트 같은 노동당 좌파 활동가들의 주장과 공명한다. 그러나 카리치스는 또한 눈앞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훈이 있다고 말한다. 좌파 정당이 사회주의적 진전에 대해 어떤 비전을 갖던 간에 시리자의 경험은 정부를 위한 집단적 전략이 필요함을 보여주며, 각 장관 후보자들에게 특정 부문에 대한 계획을 독립적으로 만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제1야당에게 주어지는 공식 자원(2016년 영국의 경우 640만 파운드)을 각 예비 장관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이 집단적인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할 필요가 있다. 적절한 기능이나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일을 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 세력의 지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러한 세력에 선을 댈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장관직을 할당해야 한다. 당은 정책을 시행하는데 수반되는 문제들을 입법 및 행정 조치를 위한 일정과 함께 어떤 국가 기관이나 조직이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충분히 숙고할 필요가 있다. 즉 이를 위해 필요한 전문성과 정책 능력을 겸비한 태스크포스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가 자원을 사회 운동으로 지원하여 이들이 새로운 국가 시책을 지원하고 자기만의 혁신적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합의된 정책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을 계속 해 나가야 한다.

2018년에 노동당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지도 못했고 그러한 사상을 발전시킬 수도 없었다. 노동당 정부를 준비하는 업무는 예비 내각의 존 트리켓 의원의 소관이었다. 2018년 초 트리켓은 예비 내각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세부사항과 이행에 초점을 두고 각기 다섯 개의 우선순위 정책을 작성토록 했다. 또 코빈, 맥도넬, 트리켓, 예비 내무장관 다이앤 애벗에 더해 당 전략 커뮤니케이션 책임자 시무스 밀론과 2017년 선거캠프 때 당 대표실을 지원한 최대 노동조합인 유나이트의 사무총장 앤드류 머레이로 구성된 전략단도 있었다. 그러나 이 모임은 정기적이지 않았고 사무국도 없었다. 물론 지도부에서 우선순위를 올렸더라면 달랐을 지도 모른다는 인상을 피하긴 어려웠지만 이는 가능성의 한계로 봐야 할 것이다.

진지전 - 헤게모니

사회민주주의를 통해 사회주의에 도달하려면 헤게모니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히 밝혀졌다. 하지만 노동당의 새 지도자들이 그것을 공고히 했는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 1979년 마거릿 대처의 측근인 키스 조셉 경이 처음으로 산업부 장관으로 취임했을 때, 그는 고위 공무원들에게 하이에크의 노예의 길과 같은 주요 신자유주의 저작 목록을 주고 읽어보도록 했다. 35년에 걸친 사회민주주의 이후 자신들이 추진해야 할 급진적인 정책변화를 이해하도록 말이다. 코빈 팀이 선거 승리 후 그와 비슷하게 고위 공무원들에게 읽어보라고 할 독서 목록이 무엇일지 확실하지 않다. 그에 상응할 만한 코르비니즘 기초 문헌은 없으며, 1945년 노동당 정부

선출 전에 이루어진 사회주의 사상과 계획의 오랜 발전에 상응하는 최근의 연구 성과도 없다(아니면 1979년 대처의 선출 이전의 하이에크와 프리드만의 추종자들이 구축한 신자유주의 싱크탱크 및 컨퍼런스에 의한 30년 이상의 작업). 무엇이 잘못되었고, 누구와 무엇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지, 또 사람들의 지금 경험과 기억 속의 (즉, 최근의) 과거를 설명해 줄 수 있고, '명백한' 개혁 과제를 알려 주는 아직 널리 공유된 일관성 있는 '스토리'도 없다.

사회주의 의제를 상식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시급한 헤게모니적 과제는 먼저 실천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당 정부의 첫 조치들은 대중적이고 실행가능하며 이념적 반대파도 끌어들이 수 있을 정도로 상식을 구현하는 것이 되어야 하며, 그래서 이 조치들의 성공적인 이행은 결정적인 이념적 변화를 예고할 것이다. 그리고 지도부는 모든 언설에서 이를 반복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사회주의 지식인들은 그것을 풍부히 하고 가능한 한 넓은 범위에서 이를 주장해야 할 것이다. 당원들은 일상적 관계와 지역 조직과의 활동 속에서 이를 분명하게 드러내야 할 것이고, 노동조합은 자신들의 요구안을 그렇게 조직하고, 대의를 지지하는 방식으로 의제를 드러내야 할 것이다. 그러나 2018년 초에는 그렇지 못했다. 요청되는 과제의 규모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까지 동원된 인원수 사이의 불일치는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컸다. 잠재적으로 그러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전문성과 재능을 가진 훨씬 더 큰 인맥의 능동적인 지원을 확보할 시간을 내는 것이 가장 명백하고 긴급하게 필요한 것이었다.

결론: 좌파에게 앞으로 나아갈 길이 있는가?

대부분의 노동당 의원들이 신자유주의에 대한 환멸이 여론을 좌파로 크게 이동시켰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에 소수 사회주의 의원들이 당원들이 지도자를 선택하게 하는 바로 그 메커니즘, 즉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그 메커니즘을 통해 당을 장악할 수 있게 했다. 좌파는 이제 당의 정책뿐만 아니라 35만 명이 넘는 새로운 당원을 추가함으로써 그 재원까지 장악했다. 당의 전문인력을 완전히 장악하려면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그 과정도 시작되었다. 코빈은 당원의 3분의 2로부터 지지를 받았고, 그가 이끈 노동당은 유권자의 40%로부터 표를 받았다.

그러나 성공하는 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은 너무나 컸고, 코빈 주변의 팀은 너무 작아서 선거에서 승리하고, 설득력 있는 정부를 구성하며, 사회주의를 향해 의미심장한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다고 자신하기 어려웠다. 세계 자본의 반대와 지구 온난화에 대한 영국의 인프라를 변화시키는 데 드는 비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 외에도, 브렉시트로 인한 경제 상황의 변화는 사회주의는 말할 것도 없고 사회민주주의를 향한 가장 세심하게 계획된 진전조차 탈선시킬 수 있다.

그러나 비관적이 되고 싶어도 전혀 확신을 가질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워낙 유동

적이었다. 코빈 프로젝트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한 많은 사람들의 역량과 헌신성은 인상적이었다. 보수당은 방향을 바꾸거나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중의 환멸에 설득력 있게 대응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드러날 수도 있을 것이다. 노동당 의원들은 마침내 (브레히트의 유명한 시처럼) 다른 인민을 선출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을 멈추고 실제로 존재하는 인민들을 상대로 활동을 시작할 수도 있다. 당은 정책 딜레마를 가까스로 해결할 수도, 더 넓은 사회주의자(또는 적어도 사회민주주의자)를 동원하여 선거에서 승리하고 탈신자유주의 시대로 진입하는 몇 가지 결정적인 첫발을 내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아니면 2017년이 이 프로젝트의 고점이었음이 입증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사회주의로의 이행의 시작이 아니라 대부분의 코빈 지지자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보다 훨씬 더 장기화된 전환의 역사 속의 초기 단계일 가능성이 높다.